© 2026 Open Doors International

Open Doors

2026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6)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방글라데시 (BANGLADESH)

기독교 박해지수 33위

폭력과 압박의 정도

폭력지수	폭력 영역	12.8	
압박지수	개인영역	12.6	
	가정영역	10.7	
	공동체영역	12.9	
	국가영역	10.7	
	교회영역	10.9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글라데시의 소수 기독교 공동체가 받는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슬람교·힌두교·불교 및 부족 전통 등 네 가지 종교적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가장 심각한 제약과 차별, 공격을 겪는다. 이들은 공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규모 가정교회나 비밀 모임에서 예배하는 경우가 많다. 무슬림 다수를 대상으로 전도 활동을 하는 교회들은 박해를 받으며 로마 가톨릭교회와 같은 역사적 교회들조차 갈수록 심해지는 적대감에 직면하고 있다. 부족 공동체의 기독교인들은 소수민족이자 종교적 소수자라는 이중의 취약성에 놓여 있으며 토지 강탈과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약 100만 명의 로힝야 난민 가운데 기독교 개종자들은 살해 협박과 공동체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2024년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물러난 뒤 노벨상 수상자 무함마드 유누스가 이끄는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소수자 권리 보호에 대한 그의 의지는 국가가 직면한 여러 난제와 선거를 앞둔 이슬람주의 단체들의 세력 확대 움직임에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25년 1월 30일).

방글라데시 (BANGLADESH)

국가 정보

지도자 : 모하메드 샤하부딘 추푸 대통령
인구 : 176,422,000명
기독교인 수 : 950,000명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의회제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950,000	0.5
이슬람교	156,582,000	88.75
힌두교	16,397,000	9.3
기타	2,493,000	1.45
	합계	**100%**

출처 1

방글라데시는 비교적 역사가 짧은 국가로 1971년 파키스탄과의 전쟁을 통해 독립했다. 그 후 여러 차례 정치적 불안정을 겪었으며 민간정부와 군사정권이 번갈아 집권했고 선거 때마다 폭력이 뒤따르는 일이 잦았다. 국민의 약 90%는 무슬림이며 대부분 수니파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공동체와 정부의 관계는 우호적이었다.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2014년 7월 가톨릭 신자인 여성을 개인 보좌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의 자유가 약화되고 최근 몇 년간 폭력적 급진 이슬람주의의 영향력이 커진 데다 2024년 폭력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취약성이 더욱 커졌다.

2024년 8월의 폭력 시위로 2009년부터 갈수록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방글라데시를 통치해 온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축출되었다. 하시나는 이웃 국가 인도로 피신했고 노벨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유누스가 이끄는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과도정부는 소수자를 향해 증가하는 폭력을 억제하는 일을 포함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사회의 여러 세력, 특히 이슬람주의 단체들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6월 사이에 치르겠다고 약속된 선거를 앞두고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약 0.5%로 비율은 낮지만 그 수가 거의 100만 명에 이르며 교파도 다양하다. 그중 약 절반은 로마 가톨릭 신자다. 개신교인들은 전국에 분포하지만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치타공 구릉지대에서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개신교 교단에는 침례교, 형제단, 루터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하나님의성회 및 성공회와 감리교가 연합한 방글라데시 교회가 있다.

방글라데시는 국민의 98%가 벵골인일 만큼 민족 구성이 대체로 단일하지만 차크마족과 같은 소수민족도 존재한다. 또한 치타공 구릉지대에는 가로족, 산탈족, 바움족 등을 포함한 '구릉지 부족민'이 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다. 구릉지 부족민들은 당국으로부터 소외와 차별을 받고 다수 공동체의 괴롭힘에 시달린다. 주택과 경작지를 파괴하는 토지 강탈도 그 예다.

---

1 *'기타'는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하기 위해 표에 개별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범주를 의미한다:*
Gina A. Zurlo 편,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 오픈도어 추정치를 반영하여 수정.

지역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방글라데시 북부 지역과 여러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치타공 구릉지대는 무슬림 다수 집단과 불교 소수 집단 모두가 그리스도인에게 가하는 인권 침해가 집중되는 지역이다. 방글라데시가 미얀마 출신 무슬림 난민 100만 명 이상을 수용하면서 또 다른 박해 집중 지역이 생겨났다. 이들 대부분은 방글라데시 남동쪽 끝의 콕스바자르 지역에 거주한다. 난민촌에는 기독교로 개종한 극소수의 로힝야인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압박과 폭력에 직면하면서도 피할 곳이 없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 출신 기독교인 공동체

이 집단에는 대사관 직원과 주요 섬유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급진 이슬람 무장 세력의 감시를 받고 때로는 위협을 당한다. 로힝야 난민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이 공동체에 포함된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이 집단에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방글라데시 교회가 포함된다. 이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위협과 감시에 직면하고 있다.

기독교 개종자

이 범주에는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및 부족 전통 등 다양한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특히 가족과 지역 공동체로부터 가장 심한 박해를 받으며 비밀리에 모이는 경우가 많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집단에는 복음주의, 침례교 및 오순절 교회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성회 교인들은 주로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들은 빈번하게 위협받으며 때로는 폭력적인 공격을 당한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이슬람 탄압과 결합된 독재정권의 편집증적 피해의식

방글라데시 정치는 전통적으로 아와미 연맹과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의 적대 관계에 좌우되어 왔지만 두 정당 모두 이슬람주의 단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리스도인과 다른 종교 소수자들은 여러 무슬림 국가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려 왔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과 폭력이 증가하면서 이들은 종종 희생양이 된다. 셰이크 하시나 정부 말기에는 서방이 방글라데시 남부를 떼어내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 한다는 소문을 하시나가 퍼뜨리기도 했다. 또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무슬림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긴장도 커졌다. 방글라데시 무슬림들은 팔레스타인 무슬림과 자신들을 동일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편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민족·종교적 적대감 및 씨족 탄압과 결합된 종교 민족주의 - 불교 및 힌두교

방글라데시의 불교인은 기독교인의 거의 두 배이고 힌두교인은 기독교인의 10배가 넘는다. 불교인은 주로 인도와 미얀마 접경 지역의 토착민 집단에 속한다. 최근 몇 년 사이 불교를 믿던 차크마족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늘었다. 개종자들은 지역 공동체와 불교 지도자 및 부족 지도자들의 압박을 받으며 급진 불교 세력은 기독교의 확산을 막으려 한다. 대부분의 힌두교 공동체에서도 지도자들과 가족들이 기독교 개종자에게 힌두교로 돌아가라고 압박한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방글라데시는 가부장적 사회로 계층 구조가 뿌리 깊으며 아동 결혼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그리스도인 여성과 소녀들, 특히 개종자들은 괴롭힘과 따돌림, 굴욕적인 의식, 성폭행, 강간, 강제결혼 또는 가택 감금에 취약하다. 이들이 겪는 박해의 상당 부분은 정신적 학대와 고립, 수치심을 이용한 통제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당국이 조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상황도 계속된다. 난민촌은 특히 위험하다. 로힝야 기독교인 여성과 소녀들은 납치와 구타, 강제 개종 및 강압적인 결혼에 직면한다. 구호물자 부족은 이들의 불안정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킨다.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압박 요인:

- 납치
- 사회적 공동체·네트워크 접근 차단
- 강제 이혼
- 강제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가택 연금)
- 개종자를 겨냥한 유혹
- 폭력 – 신체적
- 폭력 – 성적

남성

남성 중심적인 방글라데시 문화에서는 남성이 먼저 개종하는 경우가 많아 박해도 먼저 받는다. 2024년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사임한 뒤 정치적 혼란이 커지면서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 그리스도인 남성과 소년들은 당국과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공개적인 구타와 고문, 허위 고발 및 사회적 따돌림을 당한다. 일부는 조작된 마약 또는 뇌물 혐의로 고발되며 바움족과 같은 소수민족 남성들은 대반란 작전의 표적이 된다. 교회 지도자들은 여전히 체포될 위험이 특히 크다. 남성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거나 투옥되면 가족 전체가 취약해지고 생활 기반도 흔들린다.

남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압박 요인:

- 납치
- 상속권·재산권 박탈
- 허위 혐의
- 거주지 혹은 국가를 떠나도록 강요
- 정부에 의한 투옥
- 폭력 – 신체적
- 폭력 – 심리적

월드 와치 리스트 5년 동향

월드 와치 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 와치 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 점수
2026	33	71
2025	24	74
2024	26	71
2023	30	69
2022	29	68

올해 점수가 3점 낮아진 것은 지난해 3점 상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폭력 점수가 변했기 때문이다. 이전 조사 기간에는 2024년 8월의 광범위한 소요 사태와 방글라데시군의 바움족 대반란 작전 과정에서 교회와 기독교 기관을 향한 공격이 증가했다. 이번 조사 기간에는 폭력 사건이 줄었지만 개인·가정·지역 사회·교회 영역의 점수가 상승했다. 이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압박과 위협이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 영역 점수가 낮아진 것은 과도정부가 어느 정도 안정을 회복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위협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4년 11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두 사람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던 중 공격받았다. 지역 무슬림 무리가 이들에게 교회 예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대치한 뒤 벌어진 일이었다. 현재 이 교회에 속한 26가정은 추가 공격을 두려워하며 숨어 지내고 있다.
- **2024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 방글라데시 반다르반 지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공격자들이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주택 17채에 불을 질렀다 (The Daily Star, 2024년 12월 26일).
- **2025년 3월**: 방글라데시 북부에서 신자 두 명이 이슬람교를 모독하는 내용을 퍼뜨리고 금품을 제공하여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켰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 **2025년 7월 17일**: 방글라데시 토착 바움족 구성원 한 명이 정식 기소나 재판도 없이 1년 넘게 구금된 뒤 병원에서 사망했다 (BorderLens, 2025년 7월 22일). 바움족은 기독교를 믿으며 무장 반군인 쿠키친 민족전선(Kuki-Chin National Front)을 겨냥한 방글라데시군의 강경 진압으로 고통받고 있다.

월드 와치 리스트 연도	살해된 기독교인 수	공격받거나 폐쇄된 교회 또는 기독교 건물 수	구금된 기독교인 수	공격받은 기독교인 주택 또는 재산 건수
2026	3	10	27	25
2025	13	14	151	64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다이나믹스 보고서의 폭력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으로 반올림한 수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개인 영역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 개종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며 자신의 개종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려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밝히면 정기적으로 괴롭힘과 따돌림, 위협을 당한다. 가족의 압박과 사회적 감시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일도 위험할 수 있다.

가정 영역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가정을 꾸릴 권리가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 의식은 집단 폭력으로 자주 방해받는다. 기독교인 학생이나 개종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슬람교 학습에 크게 편중되어 있다. 기독교인 교사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개종자의 자녀들은 계속 이슬람 수업에 참석하고 이슬람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강요받는다.

지역사회 영역

그리스도인은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적 안전을 주변 공동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급진 이슬람주의 세력의 압박은 지역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몰아붙이게 할 수 있다. 급진 이슬람주의 단체들은 취약한 가정을 표적으로 삼아 돈과 식량, 자녀 교육을 약속하며 개종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려 한다. 개종자 집단을 겨냥한 군중 폭력도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했다. 공식적으로는 1972년 방글라데시 헌법 제28조 제1항이 '국가는 종교, 인종, 카스트, 성별 또는 출생지를 이유로 어떠한 국민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제29조는 공직에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소수자들은 광범위한 차별에 직면한다.

국가 영역

방글라데시 헌법 제41조 제1항 a호는 국민이 자유롭게 종교를 고백하고 실천하며 전파할 기본권을 보장한다. 기독교인이나 불교인 또는 힌두교인이 이슬람교로 개종하려 할 때는 그 절차가 거의 형식적인 수준이다. 반대로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려 하면 사건을 맡은 변호사로부터 압박을 받으며 변호사가 불법적으로 개종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총리 축출과 그에 따른 혼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종교 소수자의 권리가 장기적으로 보호될지는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달려 있다.

교회 영역

최근 몇 년 사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면서 활력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유지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졌다. 여러 급진 이슬람주의 단체는 기독교 교회를 감시하고 전도한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괴롭히며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한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가족과 지역 공동체 당국의 엄격한 감시도 받는다. 많은 교회 지도자는 폭력적인 보복이 두려워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못한다.

국제 의무 및 권리 침해

방글라데시는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2.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방글라데시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 개종자들은 가족에게 배척당하고 반대에 부딪히며 이혼과 자녀 양육권 상실의 위협을 받는다 (ICCPR 제18조)
- 기독교인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다 (ICCPR 제18조 및 CRC 제14조)
- 그리스도인들은 공공부문 취업에서 제한을 받고 민간부문에서도 차별을 경험한다 (ICCPR 제25조 및 제26조, ICESCR 제6조)
-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거나 전도 활동을 할 경우 괴롭힘과 폭력에 직면한다 (ICCPR 제18조 및 제19조)

방글라데시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정부가 소수자 보호 의지를 밝히고 있음에도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다. 한 사례에서는 힌두교도 남성이 페이스북에 쿠란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무슬림 남성 무리가 그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 물건을 훔친 뒤 집 일부에 불을 질렀으며 이어 다른 주택들까지 공격했다 (Al Jazeera, 2024년 12월 12일). 아흐마디야 이슬람 공동체도 여전히 신체적 공격과 기물 파손을 겪고 있다 (USCIRF, 2025년 3월).

© IMB

오픈도어의 방글라데시 사역

방글라데시는 세속국가로 출범했지만 동시에 이슬람교를 국교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슬림이 정치적·사회적으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교회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 무슬림 다수 공동체로부터 박해와 배척을 당한다.

따라서 교회를 강화하기 위한 오픈도어의 사역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에 성경적으로 대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특히 지상명령에 순종하도록 제자훈련과 역량 강화 교육 제공
- 현지 언어로 된 성경과 기타 기독교 문헌 제공
- 문해 교육과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를 통한 지원
- 박해 피해자에게 긴급 구호 제공

Open Doors

이 보고서에 관하여

- 이 국가 보고서의 내용은 오픈도어 인터내셔널(Open Doors International)의 조사 부서인 월드워치리서치(World Watch Research, WWR)가 수행한 상세 분석에 근거합니다. 이 보고서는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으나, 출처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 2026 Open Doors International.

- 50개 모든 국가 보고서와 WWL 산정 방법 (방법론)의 최신 업데이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L 2026 보고 기간은 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입니다.

**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사진은 설명을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